



차베스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 부활¹⁾

로저 버바흐

우고 차베스는 현대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그 어떤 지도자보다 국제무대에서 이목을 끌었던 사람으로 국가와 국민이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는 세계관을 주창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 즉, 북극에서부터 남쪽 티에라 데 푸에고에 이르는 미주대륙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2001년 4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제3차 미주정상회담에서부터 차베스는 세계적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내가 처음 본 차베스는 따뜻하고 카리스마로 넘치는 인물로, 부시의 우쭐대며 건방진 태도와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참가한 34개국 정상 중에 오직 차베스만이 2005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촉구하는 선언에 동의하지 않았다. 차베스의 입장은, 정상들이 지지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정책과 자유무역협정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5만 명이 넘는 오타와 시위대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차베스는 단순히 미국의 자유무역정책과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것만이 아니라, 그해 후반기에 개최된 카리브 해 국가정상회담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국민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통합"을 촉구했다. 2004년

1) 2013년 3월 6일자 『진보주의』(The Progressive)에 게재된 글.
출처: <http://globalalternatives.org/node/128>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알바(ALBA), 즉 ‘우리 아메리카인의 볼리바르 동맹’(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을 맺고, 자유무역 대신에 공정무역을 주장했다. 이 동맹에 볼리비아는 2006년, 니카라과, 에콰도르 및 5개 카리브 연안 국가는 2006년 이후에 가입하였다. 알바의 목적은 자유무역협정과 정반대이다. 즉, 알바국가들은 경쟁 대신에 연대를 기본 원칙으로 한 무역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연합을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이 아닌 국가 중심적인 무역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알바에서 체결된 초기 협정 중의 한 예로 쿠바의 의료진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교환을 들 수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또한 알바서 볼리비아와 같은 다른 동맹국 국민의 문맹퇴치 운동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알바의 중요한 핵심 의제는,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 있는 자원 분야를 시장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에 근거하여 자원을

상호보완적으로 교환하고 무역하자는 데 있다.

오늘날 알바는 카리브 해 연안의 중요한 경제 주체이다. 알바를 통해서 회원국은 의약품과 식료품을 생산하는 ‘거대국가 기업’(empresa grannacionales)을 여러 개 만들었다. 다국적 기업의 프로젝트와는 대조적으로 이 기업들은 이윤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충족한다는 이념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전 라틴아메리카에 방영되는 텔레수르(Telesur) 텔레비전 방송국과 지역 석유회사인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는 거대국가 기업 프로젝트의 한 예이다. 알바는 또한 회원국 대외지급준비금의 1%를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했다. 이 은행은 회원국의 농업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알바는 또한 미주대륙 정치계의 유력한 조직이다. 2005년 아르헨티나의 마르 데 플라타에서 열린 제4차 미주정상 회담에서 조지 부시를 포함하여 미주 정상들이 다시 만났을 때,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리고 알바 회원국 정상들은 미주 자유 무역지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기대에 치명타를 입혔다.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차베스의 꿈이 절정을 이룬 시기는 2011년 12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역사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곳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대륙의 모든 국가 정상은 셀락(CELAC)이라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국가 공동체 창설에 동의하였다. 이 공동체의 설립은 수세기 동안 미주대륙을 지배해왔던 미국 주도형 중남미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셀락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무역 특혜 관세를 성립하고, 에너지와 환경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3년 안에 모든 회원국의 문맹을 퇴치하는 등, 폭넓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차베스가 남긴 국제적 유산은 아마도 사회주의 부활일 것이다. 차베스는 다른 누구보다도 ‘21세기 사회주의’라는 개념과 동일시되는 인물이다. 2005년 1월 30일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열린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서



2011년 12월 셀락(CELAC)창설 회의에서 연설하는 우고 차베스

연설을 했다. 나는 지간티뉴 체육관에 모인 15,000명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차베스의 연설을 들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하다는 중대한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 구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구소련과 같은 체제의 악용은 있을 수 없기에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는 채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일종의 논점, 프로젝트, 또는 길이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 즉, 기구, 국가 등 그 어떤 것보다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인본주의적인 사회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21세기 신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차베스의 요청은 진보 진영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 이전에는 심지어 좌파도 구소련의 몰락이 사회주의의 죽음을 예보하는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이곳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다시 공공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한 대통령이 있었다. 무



‘사회주의로 한층 더 나은 세상’ — 카라카스 시내의 그래피티

엇보다도, 이는 한 개인의 말 혹은 열망만은 아니었다. 차베스는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배에 저항하는 민주시민운동의 반자본주의적 정신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성취할 수 있으나 ‘워싱턴으로부터 강요당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은 아니라고 차베스는 주장했다.

지난 8년 동안,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국민은 사회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지난 2005년, 차베스는 국민들에게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공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원이 공공정책과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는 다양한 공동체조직, 사회그룹, 시민의 참여, 정의’라고 정의한다. 현재까지 40만 개 이상의 공동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협동조합 또한 하위계층에서부터 사회주의를 실현한 보편적 형태 중 하나이다. 많은 공장, 특히 철강,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산업의 공장은 현재 노동자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식품 유통센터 역시 노동자

가 운영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물자부족과 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차베스마저도 죽음을 앞둔 순간에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또 차베스의 권위주의적인 법을 비난하는 비평가의 견해도 불구하고, 우고 차베스는 이후 혁명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적 체제를 수립해 놓았다. 차베스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부대통령이 될 때까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의 경력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지도자이다. 마두로는 차베스가 그러했듯이 베네수엘라를 이끌고 또 더 낡은 세상과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진두진휘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최은경 옮김]

로저 버바흐(Roger Burbach) - 『라틴아메리카의 요란한 전환: 21세기 사회주의 미래』
(Latin America's Turbulent Transitions: The Future of Twenty-First-Century
Socialism)의 공저자.

최은경 - 고려대학교 강사